

## 상황판단 공부방법론

### 하주응

#### 상황판단의 定石!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 출제위원(2013년)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 감수(2016년)

前) 베리타스 PSAT 상황판단 전임

現) 프라임법학원 PSAT 상황판단 전임강사

#### 1. 스스로 해야 한다.

현직 강사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장사꾼이 손님을 쫓아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사실이 그러하다. PSAT는 능력평가시험이다. 능력의 향상을 다른 사람이 대신 이루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강의나 수험서가 가이드가 되고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인 능력의 향상은 본인의 부단한 노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 두자.

#### 2. 때로는 중장기적인 학습이 필요할 수도 있다.

PSAT는 지식평가시험이 아니라 능력평가시험이다. 단기간의 집중적인 연습과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능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정착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장기적인 꾸준한 학습과 연습을 통해 PSAT가 요구하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고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5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2차 시험 공부를 우선시하다가 PSAT 준비를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PSAT 공부를 일찍 시작하라는 것은 1년 내내 PSAT를 준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조금 일찍 시작하여 PSAT가 요구하는 바와 자신의 능력 수준을 가늠해 보라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할 것인지는 그 후에야 판단이 가능하다.

#### 3. 일상에서의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관찰하고 생각해보자.

인간이 판단하는 방식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누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사고과정은 모두 거의 동일하다. 상황판단영역은 이러한 판단의 과정에 대해 묻는 영역이다. 일상에서의 꾸준한 관찰과 생각으로 ‘판단’이 무엇이며 ‘판단에 이르는 사고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해하고 여기에서 알아낸 사실들을 기출문제의 분석에 적용하면, 상황판단영역의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소위 문제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과 매년 새로 출제되는 문제들에는 같은 사람이 다른 옷을 입은 것과 같은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 4.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분석하자.

##### (1) 기출문제 분석의 의미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PSAT가 지식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자. 문제를 풀고 정오답을 구별하고 제시문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식 측정 시험에서나 적용될 만한 공부 방법이다. PSAT에서의 기출분석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 체계를 이해하고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을 학습하는 작업이며, 나아가 이것들이 문제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출제자의 의도 이해) 내가 해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작업이다.

##### (2) 기출문제 분석 1 : 전형적인 내용 구조의 파악

그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들을 비교하며 분석하여 상황판단영역 문제의 소재가 되는 것들의 내용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구조 안에서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상황판단영역의 문제라면 반드시 갖추게 되는 전형적인 내용 구조가 몇 가지 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영역의 취지와 특성에 의해 앞으로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 구조 안에 상황판단영역의 취지와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것을 이해하면 '나는 이 시험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잘 해야 하고,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에 가까워질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정답률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 (3) 기출문제 분석 2 : 효율적인 작업 방식의 정립

PSAT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다. 매 문제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정답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답을 찾을 때까지 요구되는 작업의 양이 많은 문제에서는 시간이 더욱 부족해진다. 이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작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평가의 포인트가 된다. 꼭 필요한 만큼의 낭비 없는 작업을 통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능력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데에 요구되는 효율적인 작업 방식은 내용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발견된다. 기출문제 분석의 완성단계는 이와 같은 효율적인 작업방식을 구축하는 것이다.

##### (4) 자기 분석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전형적인 내용의 구조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작업의 방식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으로 활용할 수 없다. 더군다나 PSAT는 사소한 실수로 인한 점수의 등락이 큰 시험이기 때문에, 오차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작업방식의 상당 부분은 습관에 의해 결정되며, 실수도 실력의 일부이다.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분석하는 동안 자신의 습관적인 작업방식에서의 비효율성을 찾아 제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습적인 실수가 발견된다면 이것 또한 시험 전까지 완전히 배제하여야 한다. 즉,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관찰·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5) 기출문제가 외워질 정도로 분석하고 또 분석하자.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외워질 정도로 많이, 깊이 있게 보는 것이다. 그냥 풀어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 마인드로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구성, 그 문제에 적용되는 기초지식과 사고방식, 문제풀이 기법들이 다른 문제들과 연계되어 떠올라야 한다. 예를 들어 “이 문제는 전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고,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A, B, C 3가지 기법을 순서대로 사용했어. B, A, C 순서로 적용해도 문제는 풀리지만 시작부터 경우의 수가 많이 펼쳐져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기출문제 중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같은 기법들이 적용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A기법은 어느 문제에도 전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이고, B기법과 C기법은 2011년 ##번 문제와 2015년 \*\*번 문제에 적용되는 기법이었어. 그리고 세부적인 풀이 기법은 차이가 있지만 지금 이 문제와 2013년도 ##번 문제는 제시문의 구성과 전체적인 사고의 틀이 매우 유사한 문제야”와 같은 설명이 청산유수로 막힘없이 나올 수 있다면, 상황판단영역 점수는 결코 낮게 나올 수가 없다.

※ 기출문제 분석 예시

- ‘판단’에 대해 이해, 기출문제의 분석, 문제풀이 기법의 개발 등에 대한 예시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법 제00조 ①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광극장유희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등의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권한 일부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00조 ① ○○법 제0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이란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00조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이란 기타 유원시설업을 말한다.

③ ○○법 제00조 제6항의 “관광 편의시설업”이란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말한다.

① 청주시에서 관광극장유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역별 관광협회인 충청북도 관광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한옥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위탁한 자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군산시에서 종합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⑤

【2013 인 5】

▶ 기본이론 : 판단에 대한 이해

- 1. '판단'은 기준과 판단 대상을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2. 기준이 설정되면 최소 2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된 분류체계가 형성된다.

▶ 문제풀이에 적용

※ 문제에 제시된 '기준'이나 '분류체계'를 간파해야 한다.

※ 사례제시형의 법조문 문제에서는 각 선택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시문의 어느 곳에 있는지 빠르게 검색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작은 개체(정보)를 제시문에서 검색하려고 하면 찾기도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검색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분류·검색의 방법과 다르지 않다. 처음부터 개체(하위 분류 항목)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분류 항목 단위의 검색을 마친 후 개체를 검색하는 단계적 검색을 실시하는 것이다.

- 1. 제시된 법조문은 상당히 많은 수의 업종을 크게 4~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① 등록해야 하는 업종
- ②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 ③ 신고해야 하는 업종
- ④ 지정을 받아야 하는 업종 (④-1 : 지정을 위탁할 수 있는 업종)

- 2. 각 선택지의 정오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택지의 내용과 관련되는 법조항을 제시된 법조문에서 찾아야 한다. 이때에 사용되는 검색의 키워드(KEYWORD)는 상위 분류 항목명인 등록, 허가, 신고, 지정, 위탁이다.

- 3. 검색과 정오 판단의 예시

선택지 ①번 : 청주시에서 관광극장유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역별 관광협회인 충청북도 관광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이라는 단어(키워드)를 ○○법 제00조 제①항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분류된 업종(하위 분류 항목) 중에 '관광극장유흥업'은 없으므로 선택지 ①번은 옳지 않다.

▶ 분석 및 문제풀이 기법의 개발(가설 설정)

- 1. 법조문에서 한 개의 문장 혹은 한 개의 조항에 요건과 효과가 모두 들어있는

경우, 대개는 문장의 앞부분(주어와 관련 어구)의 내용이 요건이고 뒷부분(서술어와 관련 어구)의 내용이 효과이다.

2. 법조문에서 키워드를 찾을 때에는 서술어 쪽에 비중을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특히 이 문제에서와 같이 많은 수의 개체를 나열하고 있는 법조문의 경우, 같은 효과가 적용되는 개체들을 하나로 묶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에 해당하는 서술어에 사용된 낱말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속도와 정확성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3. 분류체계의 항목명을 키워드로 한다는 가설을 일반 TEXT형 제시문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 더 많은 문제에 위와 같은 가설을 적용해 보고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것을 자신의 문제풀이 기법으로 채용한다.

#### 5. 자신만의 실전 매뉴얼을 만들자.

아무리 분석을 잘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더라도, 시험장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회사에 처음 입사한 직원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업무에 관한 기본 매뉴얼을 숙지하듯이, 자신만의 시험 대비 매뉴얼을 만들고 숙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시험장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혼란을 겪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며 알아낸 사고의 틀과 문제풀이 기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잦은 실수 등이 잘 정리된 매뉴얼을 만들어 시험 전날까지 숙지하고, 숙지하고, 또 숙지하자. 시험장에서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정확한 사고와 준비된 작업방식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주어진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기 때문에, 행동 패턴을 어느 정도 정형화시켜 놓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다가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6. 그 외의 준비 방법들

- 상황판단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우'를 따지는 사고가 요구된다. 때로는 수학적 경우의 수를 묻는 퍼즐형 문제들도 출제되곤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학의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부분은 한 번쯤 다시 보고 연습해두는 것이 좋다. 덤으로 '집합, 명제' 부분도 다시 보고 기억을 되살려두면 더욱 좋을 것이다. 집합, 명제 부분을 공부하면 언어논리와 상황판단에 필요한 논리력의 기반을 정립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하여 준비된 각종 수학퍼즐 문제나 논리퍼즐 문제 등을 구해서, 취미 삼아 조금씩 풀어보며 생각하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도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